

대구시의회 '의제 21 조례제정' 토론회 열어

대구시의회(의장 장경훈)에서는 2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별관 6층 회의실에서 '대구광역시 의제 21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필요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1995년부터 추진된 대구시 지방의제 '맑고 푸른 대구 21'의 10년간의 평가를 토대로 '대구의회 21'로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인 조례제정에 관한 것이었다.

시의회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여, 환경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대구의 새로운 비전



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경호 대구시위원의 사회로 학계, 시민단체, 관련공무원 등이 참가했다.

박무환기자 pmang@kyongbuk.co.kr